

' 예수님 생각하며, 바보처럼 보여도 참지요 '

“제가 순장을 하며 무언가를 가르치기보다 모두를 한 가족으로 묶이도록 하는 것 뿐이죠. 전 순장 잘 못하는 사람이예요” “직장일 하다보면 정말 미운 사람이 있죠. 예수님 생각하며 참다가도 ‘이러면 바보되는데...’하며 갈등 많이 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믿음 10순 김형중 순장. 모두 일곱 가정으로 열 네명의 순원이 순예배 참석율 1백퍼센트인 모범(?) 순이다.

“제가 특별히 나설일이 없는데...”라고 말꼬리를 흐리는 김순장에게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순전한 노력’과, ‘겸손’이이라는 향기가 난다.

97년 온누리에 온 후 ‘바른 신앙’에 대해 갈망하기 시작했을 때 직장은 이겨내기 어려운 ‘신앙에 대한 도전장’이었다. “접대를 많이 받게 되는 부서에 있죠. 술안마시는 사람 왕따되기 심상이고, 정보도 잘 안 알려주죠”

‘술 대접을 받지 않겠다’고 결단했지만, 갈등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관련 업체나 동료들은 그를 ‘까다로운 사람’, ‘특이한 사람’으로 여기기도 했고, 술자리에서 오고가는 중요한 정보들은 놓치기 심상이었다. 그런 그에게 직장생활에서 지혜를 준 것은 ‘순장학교’ 였다.

“올바른 리더십에 대한 제안을 직장에서 적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달라졌어요”

‘자기를 움직이는 리더십’, ‘윗사람에게는 대안을 제시하는 리더십’, ‘아랫사람에게 사과할 줄 아는 리더십’, ‘투명한 리더십’ 등 리더십 강의에서 배운 원리들을 하나 하나 고민하며 그의 직장생활에 적용했다.

평소 편법을 요구하는 것 같아 상사와 관계가 어려웠었다. 그러나 상사가 지시한 업무에 대해 불법적이라고 거부하기 이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 부하직원의 잘못을 추궁하기 보다 인내하며 격려했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할 줄 아는 상사가 되려 했다. 술좌석에서 술잔은 거절했지만 술값을 치워주고, 대화상대가 되고, 대리 운전도 하고, 다음날엔 숙취에 힘겨워 하는 직원들을 위해 해장국을 사주었다.

“화를 잘 내곤 했던 이전에는 제 성격을 아는 탓에 동료들이 변한 제 모습을 좋아하고 존중해주죠. 이젠 ‘저 사람한테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순장의 모습이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반짝이고 있는 듯 하다.

작심 3개월 넘기기

아버지학교를 수료한 후 삶의 중심이 직장이 아니라 가정으로 바뀌었다. 그는 순장학교와 아버지학교등 거듭된 훈련들이 그의 결단을 지켜나가게 한 큰 힘이 됐다며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작심 3일이나, 3개월이 되기 쉬웠는데, 계속 이어지는 훈련들이 결단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한다.

‘좋은 순원 만나 은혜받고 배우며 섬긴다’는 겸손한 고백을 하는 김순장이 믿음 10순은 섬기기 시작한 건 지난해 10월. 첫 순예배를 인도하며 많이 떨렸다.

“자신이 없어 기도도 적어가며 읽었죠. 순예배 순서지도 만들고, 출석부도 만들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라며 순원들 얘기를 꺼냈다.

남자 성도들의 열기가 뜨거운 믿음10순에서 김 순장이 가장 존경하는 분은 조성근 장로. 노래, 연극에 다재 다능한 조장로는 열린새신자예배에서 섬긴다. 예순이 넘는 나이에 아내 김주연 권사와의 애정전선이 늘 핑크빛이라 순원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고 있다.

삶과 죽음을 넘나들던 병으로 고생했던 최창규 집사, 믿음으로 고통의 시간을 이겨낸 그에게는 ‘물 한 모금, 밥 한숟가락의 감사’가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다. 윤종원, 한명숙 성도 부부. 늘 바쁜 회사일로 야근이 잦지만, 순예배에는 결석하는 법이 없다. 공동체 소식지와 홈페이지를 만들며 공동체를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한다.

작년에 세례를 받은 김경환 성도,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에는 항상 즐기던 등산도 포기하고 순예배와 주일 예배에 꼬박 꼬박 참석한다. 치과의사인 김진환 형제와 아내 김효정 성도. 지난해에는 순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아주 열심이다.

“저희 순은 형제들이 아주 적극적이예요. 그렇게 된 데는 한소영 권사님, 김주연 권사님 같은 아내들의 기도가 가장 큰 이유겠죠” “제가 순장을 하며 무언가를 가르치기보다 모두를 한 가족으로 묶이도록 하는 것 뿐이죠. 전 순장 잘 못하는 사람이예요” 그의 가난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맺으실 천국의 열매들이 기대된다.

신혜림 hellina@onnuri.or.kr

* 출처 : 온누리신문